



혁신, 또 혁신...세계 자동차휠 시장을 재편할 기대주

승현창 핸드코퍼레이션(주) 회장

올해로 43년된 핸드코퍼레이션(HANDS CORPORATION). 하지만 여기엔 중년의 안정감보단 신생벤처의 열정과 변화가 있다. 일상과 상식에 도전하는 과감함도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승현창 회장, 37세의 젊은 경영인이 보인다. 1972년 목재업으로 출발했던 선대 부사장(승건호)이 1980년대 자동차부품산업으로 일대 전환을 이뤄놓았다면, 그는 이제 핸드코퍼레이션의 무대를 국내에서 세계로, B2B의 범위에서 B2C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 그의 무기는 많다. 중금속인 크롬 도금을 대체한 '스퍼터링 휠(Sputtering Wheel)', 국내 최초의 '마그네슘 휠' 등은 그의 신병기. 자동차 경량휠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생산성 혁신의 증거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신병기는 '핸즈프라임(Hands Prime)'. 새로이 출시한 자동차 튜닝 휠 전문브랜드다. 자동차 튜닝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국내외 B2C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인터뷰 윤성철 회원사업본부장
정리 홍보팀 배유정 주임



핸즈코퍼레이션 본사 전경

핸즈코퍼레이션의 사옥은 독특하다. 인천의 가좌공단, 평범한 식품공장들 사이에 홀로 검은색 건물이 우뚝 서있다. 더 특별한 것은 건물 꼭대기 7~8층은 피라미드 사각뿔이란 것. 승현창 회장, 그의 집무실은 바로 그 피라미드의 한가운데 있었다.

Q. 건물도, 사무실도 특별하네요?

아하~피라미드 말씀이시죠? 이집트 피라미드와 방향과 비율까지 똑같이 해서 만들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웅장한 피라미드처럼 우리 핸즈코퍼레이션도 100년, 200년 지속성장하라는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Q. 처음 시작은 목재사업이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1972년 '동화합판'이란 이름으로 목재사업에 뛰어드셨죠. 1980년도엔 5천 만불 수출탑에다 철탑산업훈장까지 받으셨다고 해요.

그 때 전 너무 어려서 잘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그 즈음부터 자동차부품산업의 잠재력을 보시고는 자동차부품 생산에도 본격 뛰어들었다고 해요. 그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봐야죠.

혹시 회사 들어오시다 '해보셨습니까?'라는 문구가 적힌 것을 보셨습니까? 저희 사훈입니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핸즈코퍼레이션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자동차 휠을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 '핸즈'의 선택은 '휠'이고, 그래서 우리 '휠'에 집중합니다.



마그네슘 저압주조 휠



스퍼터링 휠

Q. 그래도 진정한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기엔 특별한 그 무엇이 있었을 텐데요.

저희의 비전을 'Creative All By HANDS'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핸즈의 창조적인 힘으로 무한한 가치를 창조하며 모든 것을 이루어내자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또 'Think different, Do different'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행동하자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생각과 행동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에 생존할 수 없습니다. 남과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창의적으로 적용했을 때 탁월한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3D오션'이라고 말하는데요.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일을 '쉽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분야가 바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핸즈는 필요한 설비가 없다면 직접 만들고, 기술이 없다면 바로 연구개발에 들어갑니다. 임직원이 매달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지금의 핸즈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Q. 그것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저희 핸즈 식구들의 팀워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지요. 저희에겐 '제안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제안을 해서 회사 이익으로 이어질 경우,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게 이익의 12분의 1을 주는 것입니다. 12분의 5는 전체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분의 6은 회사에 재투자됩니다. 처음 제도를

시작할 때 가우뚱하던 직원들도 직접 성과급을 받고 보니 의욕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 열정이 핸즈코 퍼레이션이 국내 1위, 세계 5위 자동차 휠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작은 비결이라면 비결이랄 수 있지요.

Q. 지난해 '마그네슘 저압주조 휠', '스퍼터링 휠' 제조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연비 향상은 업계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마그네슘 저압주조 휠'은 일반 알루미늄 휠보다 가벼운 만큼 경량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레이싱카를 위해 소량생산과 단조방식으로 제작하던 마그네슘 휠을 저압주조공법을 사용해 세계 최초로 대량생산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환경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크롬도금을 대체하고자 크롬 효과를 내는 '스퍼터링 휠'을 개발했는데, 이 휠은 건식 도금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폐수 및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정도 효율적이어서 작업비용 절감 효과까지 톡톡히 얻고 있습니다.

Q. 얼마 전 폭스바겐의 품질관리공정 감사에서 A등급을 획득했는데.

사실 폭스바겐의 감사를 받을 때 '세계 최고의 휠 공장'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웃음) 자동화된 제조공정과 아시아 최고의 품질 테스트 설비인 '바이엑셀'을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번 폭스바겐 A등급 인증을 통해 폭스



핸즈코퍼레이션은 일반 대중들도 쉽게 모터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다.



바겐 계열사인 아우디, 람보르기니, 포르쉐, 벤틀리 등의 신규 거러쳐 개척의 발판을 마련했으니 신규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새로운 B2C브랜드 '핸즈프라임'을 출시한 게 지난해 7월 이었던가요?

지금까지 핸드코퍼레이션은 OEM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지만 대중들에게는 생소한 기업입니다. 우리 핸드는 오프라인 매장인 '핸즈프라임'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행사로 대중에게 다가가고 일반고객층을 강화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은 현재 5천억대로 소규모입니다. 이중 자동차 바퀴(휠/타이어) 시장은 겨우 1천억원대 수준이죠. 정부가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규제를 풀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핸드프라임의 국내 런칭을 발판으로 국내 자동차 튜닝시장에 숨을 불어넣고 전 세계 자

동차 튜닝 애프터마켓(After Market) 진출에도 한 발 다가섰습니다.

Q. 곧 열리는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2015'도 그 일환인가요?

3월 28일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을 시작으로 총 6번의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자신의 차량으로 서킷을 체험할 수 있는 트랙데이와 국내 최초의 외산 차량 원메이크 레이스(토요타 86), 슈퍼카 레이스(Super GT 4000), 아마추어 원메이크 레이스(아베오)가 열립니다. 카레이싱이라고 하면 스포츠카나 슈퍼카들의 전유물로 아는데, 우리 페스티벌엔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F1대회에는 조 단위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모터스포츠가 유명하지 않고 그 시장도 작지만,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모터스포츠 마니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BN**